

금융학회 · 한국금융정보학회 금산분리 제1차 심포지엄>

“금산분리 규제의 과거와 현재 ” 에 대한 토론문

2021. 5. 26.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교수

검토 배경

‘금융기술’(FinTech)의 발전과 금융혁신

금융기술기업의 금융업 진출 확대

특히 ‘거대정보기술기업’(Big Tech)의 금융업 진출은


기존 금융기관과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 제기

금융기술기업이나 거대정보기술기업을 ‘금융기관’으로 보아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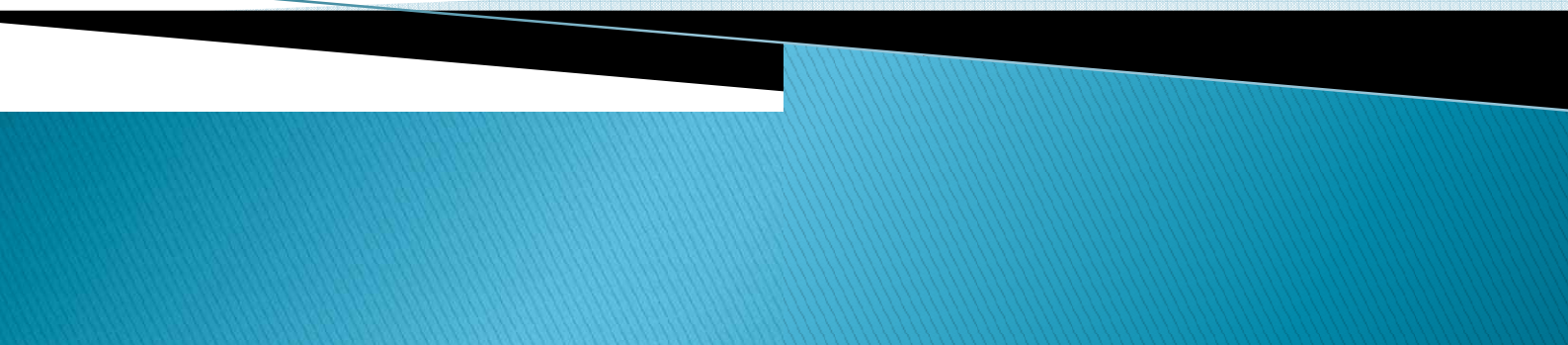
특히 동일 기능 규제 원칙의 적용 주장이 제기

금산분리 면에서도 동일하게 논의될 필요





**전자금융업자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산법) 제24조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금산법 제24조 개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금지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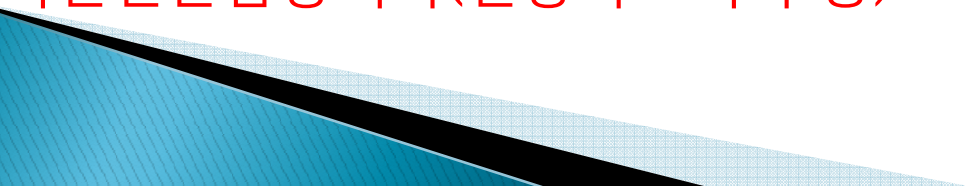
금융기관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 방지 목적

‘동일계열 금융기관’(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에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 취득 시 금융감독당국의 승인 요→
금융감독당국에 의한 통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비금융업종 회사를 ‘사실상 지배’ 하는 것 금지→ 의결권 있는 주식 5% 미만 소유는 사실상 지배로 보지 않음

사실상 지배: ‘최대주주’이거나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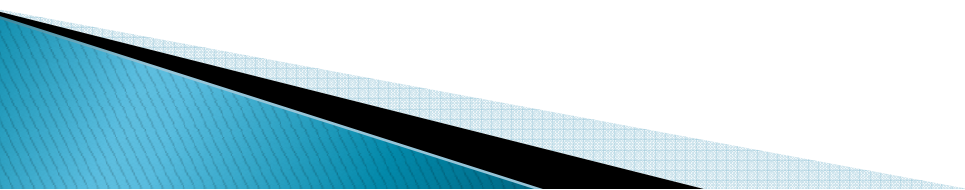
적용 대상 금융기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
자문회사(투자일임업 포함), 신탁회사, 금융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회사 등)



전자금융업자는 금산법 제24조 적용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견해

전자금융업자는 자금 이체나 송금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업종이라 ‘금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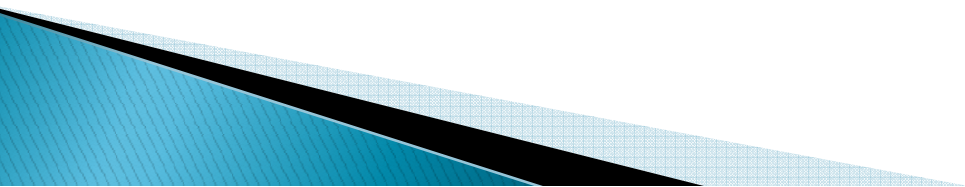
전자금융업자는 고객의 자금을 이용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금산결합(즉 비금융회사 지배)에 따른 표해 초래 가능성 없음



전자금융업자도 금산법 제24조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

전자금융업자, 특히 ‘종합지급결제사업자’(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도 금산법 제24조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

전자금융업자도 비금융회사 지배를 통하여 지배력 확장 가능성
고객의 자금을 이용하지 않는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여신전문
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도 금산법 제24조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
에서 전자금융업자도 동일하게 규제 필요성 → **동일 규제 원칙 적**
비금융회사 지배를 통한 지배력 확대 시 비금융회사 부실 위험의
전자금융업자로 전이 가능성 여전히 존재 → **금융 안정 위협**
전자금융업자도 ‘금융기관’으로 인정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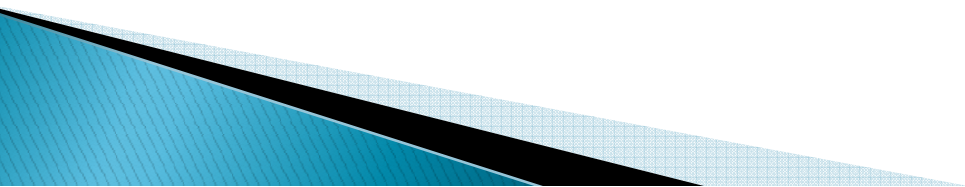


검토

전자금융업자도 금산법 제24조 적용 대상이 될 필요

특히 규모가 큰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경우 그 필요성이 큼

여전히 비금융회사 지배를 통한 지배력 확장 가능성 존재



감사합니다

dwko@skku.edu

